

# 2020년 바이오기업 상장 현황 및 이슈

신광민 이사 한국바이오협회  
 신정섭 상무 KB인베스트먼트

## ☑️ 상장 정의, 종류, 코스닥 상장 심사 절차 및 특례 제도

- 상장이란 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함.
- 원활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가격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투자자 보호를 도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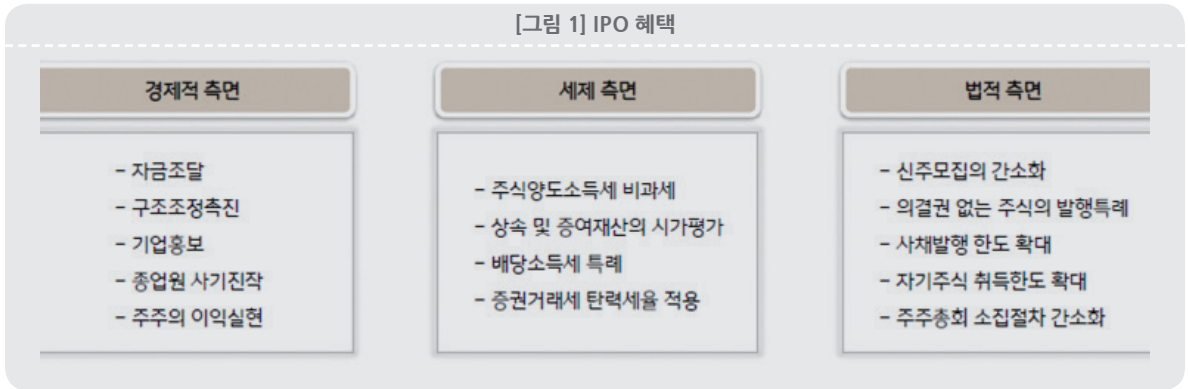
[표 1] 상장의 종류

상장 형태에 따른 구분		상장의 구분	
공모상장	상장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공모하여 상장하는 것	신규상장	증권시장에 주권을 처음 상장시키는 것
직상장	유통상장이라고도 하며,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여 공모를 하지 않고 상장하는 것	재상장	상장폐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상장법인의 분할 등에 의해 신설된 기업의 주권을 상장시키는 것
동시상장	국내외 복수의 시장에서 공모절차를 거쳐 동시에 상장하는 것	신주상장	주권상장법인이 유,무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여 추가적으로 상장시키는 것
		변경상장	상장주권의 상호, 액면금액 등이 변경된 경우 구주권을 신주권으로 교체 상장시키는 것

출처: KB인베스트먼트 VC투자회수 전략을 위한 코스닥 상장트랙 안내(19.11월)>

- IPO(Initial Public Offering)란, 최초로 상장되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전제로 실시하는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의미함.
- 기업이 모집·매출(Public Offering)을 통해 일반인에게 발행주식을 분산시키고 재무 내용 등 실체를 알리는 것으로써 발행주식이 증권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함.

[그림 1] IPO 혜택



출처: KB인베스트먼트('19.11월)

● **상장 단계는 일반적으로 「상장 사전 준비」, 「청구서/신고서 제출 및 승인 효력발생」, 「청약 납입/ 상장」의 3가지 단계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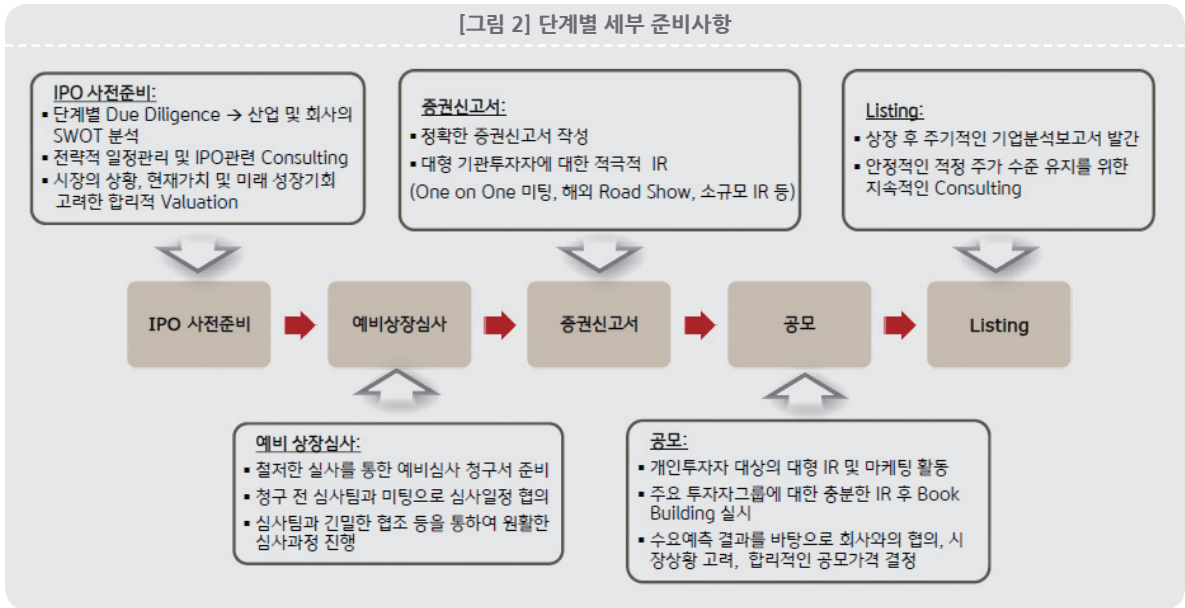
- (상장 사전 준비) 대부분 6개월 이상 권장하는 단계로, 상장을 위한 주관회사 선정, 상장 관련 이슈도출 및 예비심사청구서 작성, 이사회 결의 등이 이 단계에 포함됨.
- (예비심사 청구 및 증권신고서 제출) 예비심사 청구 후 3개월 정도 소요되며, 거래소 심사 대응, 예비 심사 승인(45 영업일), Valuation, 총액 인수계약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단계임.
- (청약 납입 /상장) 수요예측, 청약, 매각대금입금, 상장 신청/승인, 매매개시, Post IPO 마케팅 활동 등을 포함하는 단계임.

[표 2] 코스닥 상장심사 절차

상장 사전 준비		청구서/신고서 제출 및 승인/효력발생		청약 납입 / 상장	
대표주관사 선정	실사 및 사전정비	예비심사 청구	증권신고서 제출	청약 및 납입	상장 및 매매개시
대표주관사 선정 예비심사청구 2개월 이전	6개월 이상 권장	신청	신청 후 3개월	신청 후 4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 주관사 계약</li> <li>· IPO T/F 미팅 및 자문서비스</li> <li>· 발행사 업무인력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예비심사</li> <li>· 상장관련 이슈 검토 및 보완</li> <li>·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 정비</li> <li>· 정관, 사규 등 내부통제 정비</li> <li>· 예비심사청구서 작성</li> <li>· 1차 Valuat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서 및 첨부서류 제출</li> <li>· 상장 예비 심사(45 영업일)</li> <li>· 2차 Valuation</li> <li>· 총액 인수계약 체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공모신고서 금융위 제출</li> <li>· 마케팅 전략 수립</li> <li>· 공모적격성 등 심사(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후 효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주관사 영업망 등 청약</li> <li>· 기관수요예측, 일반투자자, 우리사주 청약</li> <li>· 납입 및 등기(대표주관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상장 신청서 제출 및 승인(신청후 약 5영업일 이내)</li> <li>· 매매개시</li> <li>· Post IPO 마케팅 활동</li> </ul>

출처: '20.6월 한국바이오협회-스마트스타트 KRX 발표

[그림 2] 단계별 세부 준비사항



출처: KB인베스트먼트(19.11월)

※ 성장성 특례

- 상장 주선인(IB)이 성장성이 있는 초기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상장시킬수 있도록 IB 추천에 의한 특례상장제도를 도입 운영
  - 상장 주선인에 풋백옵션 의무 부여(6개월, 공모가의 90&%)
  - 공모제도 특례 적용(공모가 산정, 배정 등의 IB 자율권 부여)
  - 상장 주선인 추천에 의한 기술성장기업 성장성 보고서 (성장성 보고서)
- 성장성 특례상장 추천을 위한 평가모범규준 제정 운영

구분	주요내용
대내외 경영환경	사업 환경, 시장규모 및 성장 전망, 경영진 등 내부 역량
기술성 및 사업성	기술기반기업 : 기술의 완성도, 경쟁 우위, 인적/물적 인프라, 상용화 경쟁력 사업모델기업 : 사업계획의 완성도, 경쟁 우위, 인적/물적 인프라, 상용화 경쟁력
성장 가능성	공모자금을 통한 성장 가능성, 추정손익 합리성 및 실현 가능성

※ 이익미실현 상장제도(테슬라 상장)

- 아직 기업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기업, 독창적 사업모델을 가진 기업, 상장주관사가 추천한 기업도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제도
  - 적자 기업이라도 일정 수준 이상 시가총액, 매출, 자기자본 등의 요건을 갖추면 코스닥시장에 상장
  - 별도의 기술평가등급 없는 대신 상장주관사가 상장 후 3개월 동안 일반청약자에 대해 공모가 90% 수준의 풋백 옵션 의무를 이행

### 📌 바이오 기업 상장 또는 상장 준비 현황(공개자료 기준)

- 신약, 진단, CRO, 치료제, 서비스 등 다양한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을 위한 활동 추진 중임.

[표 3] 바이오 기업 상장/ 상장 준비 현황(기준일: 2020. 9.)

순번	업체명	설명	비고
1	SCM 생명과학	줄기세포 전문기업	코스닥 상장
2	드림씨아이에스	신약개발 임상 CRO	
3	제놀루션	분자진단 체외기기개발, RNAi 서비스 기업	코스닥 상장
4	소마젠	(마크로젠) 유전체 분석기업	
5	위더스제약	순환기, 소화기의약품제약사	
6	카이노스메드	암, 대사질환 치료제	
7	젠큐릭스	분자진단 전문기업	
8	셀레믹스	유전체 분석서비스기업	
9	한국파마	제너릭, 개량신약 개발기업	
10	SK바이오팜	글로벌 혁신신약기업	코스피 상장
11	노브메타파마	대사질환 신약개발	상장자격 획득
12	이오플로우	웨어러블 의료기기	
13	박셀바이오	면역세포 치료제	
14	피플바이오	혈액진단키트	
15	압타머사이언스	바이오 의료진단기업	
16	미코바이오메드	당뇨병 진단	
17	퀀타메트릭스	미생물 진단	
18	뷰노	(인공지능) 바이오/의료이미지/영상 분석 기업	
19	큐라티스	결핵백신 개발	상장예비심사청구
20	클리노믹스	개능기반 암/질병 진단	
21	프리시전바이오	(체외진단)현장진단기술기업	
22	고바이오랩	마이크로바이옴 기업	상장예비심사청구
23	네오이문텍	차세대 면역 항암제 기업	
24	자놈앤컴퍼니	마이크로바이옴 기업	
25	엔젠바이오	(유전체) 바이오/의료진단	
26	디엔디파마텍	(신약) 퇴행성뇌질환 개발	기술성평가 통과
27	안지오랩	혈관질환 치료제기업	스팩상장 청구
28	이노비오	DNA 백신개발	상장예비심사준비
29	힐세리온	무선휴대용 초음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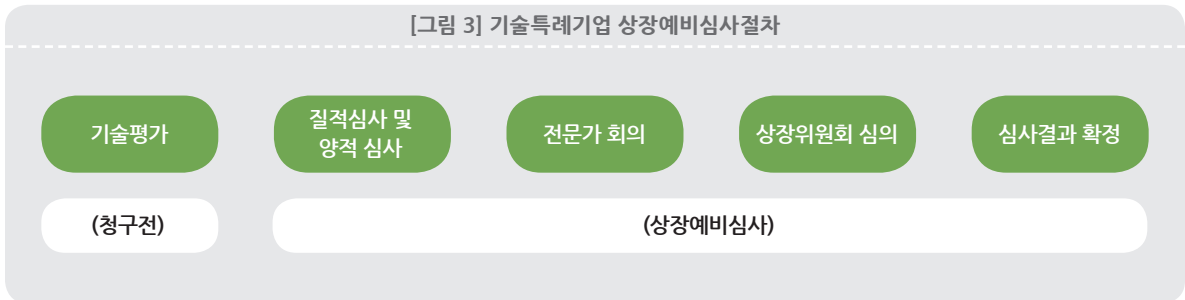
30	제노스코	관절염/백혈병 치료제	상장 준비
31	엔솔바이오 사이언스	신약, 바이오소재, 생물분석 솔루션	
32	돌젠	유전자 가위 원천기술	
33	에빅스젠	바이오/의료약품/약물 개발	
34	노보믹스	(체외진단) 정밀의료 개발	
35	큐라클	(신약) 바이오/의료 개발	
36	루닛	(인공지능) 진단SW개발	

### 📌 [바이오 기업] 기술평가 상장 특례

- 기술특례 상장 제도란, 기술력과 성장성이 뛰어난 유망기업이 기술평가를 활용해 기술력과 미래가치를 증명하고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함.

- 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중 두 곳으로부터 A, BBB 등급이상 평가를 받은 신청 기업에게 예비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신청기업은 대부분의 외형요건이 면제되며 자기자본 10억원 혹은 기준 시가총액 90억 원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관련 링크: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20100/LST04020100.jsp>).
- 자본시장의 자금조달을 적극지원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함.

[그림 3] 기술특례기업 상장예비심사절차



출처: 20.6월 한국바이오협회-스마트스타트 KRX 발표

- ‘19년 기술특례 상장기업은 22개로 ’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임.

- 기술특례기업이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총비중은 약 10%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19년은 비바이오 기업 8개사 등 다양한 업종분야로 확대됨.

- 기술특례 상장기업의 공모금액도 약 6,138억원으로 시장의 높은 관심도를 유지함.
- \* 일반 상장사는 한국거래소에 상장심사, 신규상장 수수료 등을 포함해 연간 약 600만~3800만원을 납부해야 함. 한국예탁결제원에도 의무보호예수 수수료를 약 10만~100만원 가량 지불해야 함.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이 수수료를 3년간 면제받음.

[표 4] 013-2019 코스닥 기술특례 및 상장 청구 현황

구분	'13	'14	'15	'16	'17	'18	'19
전체 상장청구	42	85	157	116	117	119	142
기술특례 상장청구	3	5	31	22	15	26	27
기술특례 비중	7.1%	5.9%	13.4%	19.0%	12.8%	21.5%	19.0%
상장기업수	4	2	12	10	7	21	22
				(바이오) 9	(바이오) 5	(바이오) 15	(바이오) 14
				(비바이오) 1	(비바이오) 2	(비바이오) 6	(비바이오) 8
공모금액(억원)	609	505	2,221	3,003	685	6,147	6,138

출처: '20.6월 한국바이오협회-스마트스타트 KRX 발표

### 바이오 기업 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 이슈

- 기술성평가 주요 심사항목은 기술의 경쟁우위와 기술성공 가능성, 연구개발역량, 지적재산 보유, 수익창출 가능성 등이 있음.

- (기술의 경쟁우위) 원천기술의 보유 여부, 기술이전 실적, 주요 제약-바이오업체로부터 펀딩, 공동연구개발 등 네트워킹 구축, 국가과제 수행 내역 등이 있으면 유리하게 작용함.
- (기술성공 가능성) 다수의 파이프라인 보유와 임상에 돌입한 파이프라인 존재 여부 및 개수, 상용화 가능성과 경쟁력 등을 살피며, 다만 임상단계 들어가지 않은 기술은 평가가 어려움.
  - \*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모 기업의 경우 전임상 12건 파이프라인이 있었지만 기술성, 사업성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 철회함.
- (수익성) 실제로 사업화 됐을 때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충분한 시장 규모가 있는지, 경쟁회사의 개발 진행 정도를 확인함.
  - \* 국내에서 개발 진도를 많이 나갔지만 시장 규모가 협소했고, 해외 라이선스 아웃도 어려워 미승인난 케이스가 있음.
- (연구개발역량) 대표이사의 전문성과 핵심 연구개발연구 인력의 과거 연구실적 및 전문성, 재직기간 등을 확인함(특히 대표이사의 역량 항목 중요).
  - \* 모 회사의 경우 핵심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연구소장 한명밖에 없어 기술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미승인한 케이스가 있음.

- (지적재산 보유)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등록여부, 경쟁사와의 특허분쟁 가능성 등을 확인함.  
\* 경쟁사와의 특허 분쟁 때문에 미승인 된 기업이 있었음.
- (수익창출 가능성) 시장 경쟁상황, 해당 시장 규모, 수익 모델 등을 고려한 국내외 사업화 경쟁력 등을 분석함.

### **상장심사 이슈**

#### ● **사업의 독립성, 사업성, 임상결과, 시장규모 등을 확인함.**

- 사업의 독립성 확보 여부 : 기술 이전 후 청구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사업의 독립성을 갖추고 영위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판단함.
- 경쟁업체 대비 사업성 확보 여부 : 경쟁사 제품과의 비교 우위, 기술이전 실적, 특허권 보유 등을 통해 수익창출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함.
- 임상 결과 및 반영 : 안정성 우려, 임상효과 미약 또는 경쟁사 대비 개발이 늦었다면 사업성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 판단함.
- 시장규모 제한적 및 특허 부족 : 해당국 사업화 가능여부 불확실, 시장경쟁력 부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 판단함.
- 대형 제약사와의 공동 연구개발/자금조달 :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제품의 판매가능성 및 해외 기술이전 성공가능성에 대해 판단함.
- 사업성에 대한 추가 검증 : 출시 후에도 시장에서 경쟁 열위인 상황, 일시적 매출, 시장의 비선호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판단함.

### **맺음말**

바이오기업에게 상장(기업공개, IPO; Initial Public Offering)은 공모를 통하여 계획 사업을 수행할 대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자 상장 이후 유상증자를 통하여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적 의미가 있음.

투자자들에게 상장기업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기업 운영의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투자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즉,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시 계획사업의 성패 및 프로젝트들의 개발 성공 가능성에 투자검토의 초점을 맞출 수 있음.

상장은 바이오기업들에게 있어서 사업 성공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의미를 가짐.

예를 들어, 바이오기업을 사람으로 본다면,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리스트는 이들 기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생계와 학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바이오기업은 상장이라는 성인식을 거쳐 비전사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됨.

2020년 중반부터 SK바이오팜을 필두로 바이오기업들의 상장 이후 주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음. 이는 산업 내부적으로는 FDA 신약 허가, 글로벌 기술이전 등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가치사슬이 채워져 가고 있는 점과, 외부적 요인으로는 금리 인하 등으로 자금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인 하는 것으로 보임.

향후에는 기술성특례, 스펙상장 등 바이오기업의 상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다양한 바이오 기업의 상장은 경쟁력 있는 국내 바이오 벤처 업계 성장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향후 바이오벤처 투자를 유도하여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적인 흐름을 촉진함.

또한 바이오벤처기업들은 IPO, 특례 상장의 전략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금 조달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며, 바이오벤처 생태계는 더욱 풍성해지는 계기가 될 것임.

추가적으로 바이오기업 상장 이후에는 기술이전, M&A 등 산업 생태계 구성원 간 협업을 통해 영업 이익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변화가 필요.

향후 국내 바이오 산업이 다양한 경영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 재투자를 통해 새로운 기술개발 및 창업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 강화 필요.

#### Writer

신광민 한국바이오협회, 이사  
최미연 한국바이오협회, 과장  
고은별 한국바이오협회, 대리

#### Reviewer

신경섭 KB인베스트먼트, 상무

### BIO ECONOMY BRIEF

발행 : 2020년 08월 | 발행인 : 서정선 | 발행처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삼평동,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1층, www.koreabio.or.kr  
\* 관련 문의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e-mail : Koreabio1@koreabio.org



Innovating Data Into Strategy & Business

